

2학년 3반 박세빈 (여) 양서준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하하 쟁쟁 아이 목말라

제목 : 피구

피구를 했는데 우리가 2번이겼고 그 반대팀은
1번이겼다. 딱 개차이로 우리가 이겼다. (와!)
그리고 사범님이 공을 차고 우리가 두명씩 피
구도 하였다. 그공이 맞으면 아팠되는데 나는 1번
은 아팠되었고 1번은 언니 오빠들과 샀다.
너무 힘들었다. 너무 많이 달려서 다리에 힘이
풀리고 숨이 차고 무서웠다. 또 심장도 날
리뛰었고 너무 많이 뛰어서 많이 주르르 났다.
그리고 목도 말랐다. 그만큼 피구가 힘들었다.
역시 피구는 힘들고 이럴때 재미있기도 하다!
그리고 피구 심심할때 피구를 하면 좋을거라고 나는
생각한다.